

이 천 용
「숲과 문화」 편집인

동요 속의 숲과 자연(Ⅱ)

나무 · 꽃

묵묵히 자라는 나무가 기특하여 만든 듯한 「나무」라는 동요를 보면 10년 전 식목일 특집으로 한 텔레비전 방송국에 새, 나비, 동물 분야 전문가와 함께 가족 모두 출연했던 「우리 가족 만세」라는 프로가 생각난다. 가족 합창곡으로 이 곡을 지정하여 불러보라고 하는데 들어보지도 못한 노래여서 다른 동요로 바꾸어 달라니 이번에는 악단이 준비를 못했단다. 녹화프로였으므로 연습을 두 번 정도 하고 카메라 앞에 섰는데 그 짧은 가사가 얼른 떠오르지 않아 무척 당황하였으나 다행히 우리 가족은 곧 배워서 간신히 나무박사의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었다. 지금도 이 노랫말만 보면 그러한 추억으로 웃음이 난다. 다시 한번 읊조려 보아도 선뜻 외워지지 않음은 이미 동심을 잃어버린 탓인가 보다.

“나무도 나무도 나이를 먹는다.

우리들처럼야 나이를 먹는다.

아무도 모르는 나무들 나이
나무만 아는 동그란 나이”

〈강소천謠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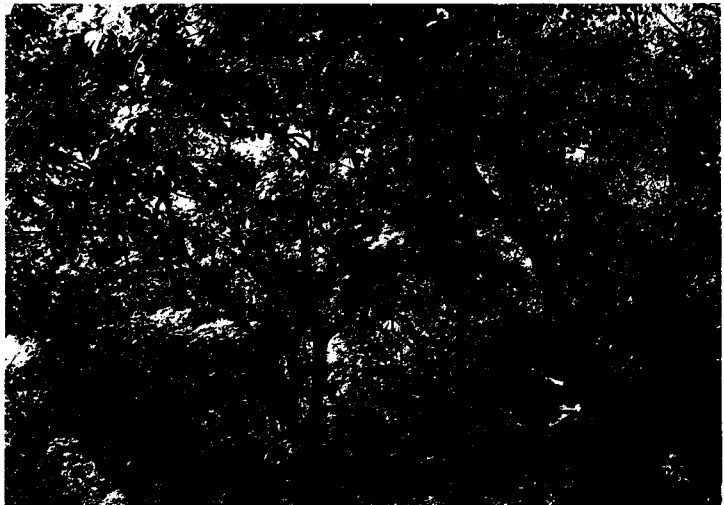
이 동시를 만든 아동 문학가 강소천은 20세기 전반에 우수한 동요 동시를 많이 발표하였다. 운석중이 시도한 시적 동요를 계승하여 동시 출현에 결정적 공헌을 하였으며 초기에 낭만적이고 예술적인 향기가 나는 시를 많이 썼

다. 그 후 낭만적 기초위에 자연에 대한 예리한 관찰로 이미지 형성에 주력하였다.

그러면 동요에 등장하는 나무를 수종별로 살펴본다.

1. 참나무류

우리 나무의 대표는 소나무와 참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나무를 직접 다룬 동요는 보기 힘들다. 단지 ‘솔 숲 너머로 방긋



▲신갈나무 숲, 북한산

웃는 온음표 달님과 같이 음악의 음표를 외우기 위해 조연으로 등장하거나 1930년 동요집에 일부가 등장한다. 아마 소나무는 황금빛은 껍질과 크기가 위용을 나타내니 어린 나무인 것처럼 느끼는 반면 참나무는 키가 작고, 열매인 도토리 귀여운 다람쥐의 먹이가 되었으므로 동요 소재로는 참나무가 더 적합했으리라.

“때굴 때굴 도토리가 어디서 왔나/단풍잎 곱게 물든 산골짜에서 왔지

때굴 때굴 도토리가 어디서 왔나/깊은 산골 종소리 듣고 있다가 왔지

때굴 때굴 도토리가 어디서 왔나/다람쥐 한눈 팔 때 즐고 있다가 왔지”

〈유성운 謠 ‘도토리’〉

2 아카시아

아카시아는 詩語로서는 손색이 없다. 고향 가는 길 동구밖에 어김없이 서 있어서 그윽한 향내와 시원한 그늘을 주는 나무이니,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아카시아가 많이 피어 있는 모양을 마치 꽃비 내리는 길이라고 하며 ‘과수원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애창하는 곡이다.

“동구밖 과수원길 아카시아꽃이 활짝 폈네. 하이얀 이파리 눈송이 처럼 날리네.

향긋한 풀냄새가 실바람 타고 술 술. 둘이서 말이 없네.

얼굴 마주보며 썩웃.

아카시아꽃 하얗게 핀,
먼 옛날의 과수원 길”
〈박화복 謠 ‘과수원길’〉

3 버드나무류

봄에 늘어진 가지에 파란 점을 매달아 계절이 왔음을 알려주는 버드나무도 주변에 많아 친근한 나무이다. 꽃동네인 나의 옛 고향을 회상해 보면 바람이 불 때 냇가의 수양버들이 춤추는 광경이 아스라히 떠오른다. 버드나무 밑으로 흐르는 깨끗한 송사리가 빠르게 움직이며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도 여유롭다.

“버들 밑으로 흐르는 하늘,
그 속에 사는 송사리들 버들잎
만큼 햇살을 떼어 몸에 붙이고
논다.

반짝반짝 몸짓 즐겁고,
반짝반짝 빛으로 말하고,
버들 밑 하늘이 좋아 빛으로
산다.
정으로 산다.”

〈권오훈 謠 ‘송사리’〉

또 달빛이 비치는 연못가의 버드나무 모습은 어떠한가. 오로지 아름다울 뿐이다.

“비단 물결 남실남실 어깨 춤추고,
머리감은 수양버들 거문고 타면
달밤에 소금쟁이 뱀을 돈단다”
〈윤석중 謠 ‘달맞이’〉

4 해당화

한 때 히트했던 유행가에 등장하는 해당화는 슬픈 내용을 품고 있듯이 동요에서도 해당화 핀 나

루터는 누구를 기다리거나 떠나 보내는 장소로 기억된다. 바닷가에 피는 해당화를 빌어 그 마음을 전한다.

“꽃섬나무 나루터에 나룻배 한 척,
건너가는 손님없이 꽃잎만
실고 간다.

모래톱 그 어디서 해당화꽃
피었나.

다홍꽃잎 날아와서 뱃전에
사뿐”

〈박화복 謠 ‘꽃섬나무’〉

5 미루나무

미루나무는 마을어귀에 두 세 그루 또는 개울을 따라 죽 심겨 있다. 20년 전만 해도 나무도시락이나 젓가락 재료로 각광을 받아 수 십 그루를 가지고 있으면 제법 큰 돈이 되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 빨리 자라서 그늘을 주어 시원하기도 하였지만 농작물에게 줄 햇빛을 가려 반대로 농부들이 싫어했던 나무다. 옛날 뚝섬 모래섬에 미루나무가 가득 덮여 있을 때는 산비둘기도 많이 살았다. 지금은 미루나무 대신 인공물인 아파트 숲이 가득차 있다. 훌쩍 키가 커서 나뭇잎이 드문 드문 달린 미루나무에 바람이 스치면 잎 뒷면의 하얀 부분이 햇살에 빛난다.

“동시들이 꿈꾸는 마을 숲길을
걸어가면, 새소리 물소리들이
쉬지않고 들려와요.

은빛나래치며 산새들
날아갈 때,

나도 나도 날아갈래,
 푸른가지 흔들어대는
 미루나무.
 아름다운 꿈 살며시 피어나요.
 미루나무 아름다운 꿈.
 숲속으로 피어나요.”
 <이순형謠 ‘꿈꾸는 마을’>
 달밤에는 미루나무 그림자가
 마치 나를 따라 오는 것 같아
 머리끝이 선 기억도 있지만, 미루
 나무 사이로 비치는 달의 모습도
 정겨운 시골의 한 풍경이다.
 “먼 길에서 달님이 놀러 왔는데
 키다리 미루나무. 저만 혼자서 자
 꾸자꾸 싱겁게 고개 흔드네.”
 <김교현謠 ‘맞아 맞아’>

6. 은행나무

가을 은행나무 잎을 책갈피에
 꽂아두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을
 까. 가장 가까이 있는 나무로서
 노란 은행잎이 바람이 지나간 다
 음에 소복히 쌓인 광경은 우리 모

두를 시인으로 만든다.
 “내 책을 넘겨보고 달아난 바
 람, 노오란 은행잎을 놓고 갔어
 요.
 내가 읽은 책 틈에 끼워 달라고
 가을이 보내 준 선물인가봐.
 내머리를 만져주고 달아난 바
 람,
 빼알간 단풍잎을 놓고 갔어요.
 내가 읽은 책 틈에 끼워 달라고
 가을이 보내준 선물인가봐”
 “가을바람 솔솔솔 불어오더니
 은행잎은 한 잎, 두 잎
 물들어져요.
 지난 봄에 언니가 서울 가시며
 은행잎이 물들면은 오신다더니.
 어제 저녁 바람에 찬서리 내려
 은행잎은 한 잎, 두 잎
 떨어지고요.
 서울가신 언니는 왜 안오실까.
 은행잎이 떨어져도 왜 안오실
 까”
 <장수철곡 ‘은행잎’>



▲은행나무, 홍릉수목원

7. 진달래

진달래는 우리 회원에게는 익
 숙한 이름이다. 봄숲 탐방할 때는
 의례히 진달래가 등장하는데 특
 히 박희진 시인의 ‘진달래 淨土
 길’이라는 시는 진달래를 수식하
 는데 더 이상의 찬사가 없는 듯하
 다. 그는 우이동쪽 북한산 가는
 길 중 법화사에 이르는 길을 그렇
 게 명명하고 그 길을 걸을 때면
 그윽한 맛이 더하고 키를 넘는 진
 달래나무들이 도열한 사이를 지
 나면 마치 사월에 임하는 장군이
 된 듯하다고 하였다. 더러 꽃빛깔
 이 유난히 붉다든가, 석양빛 받고
 반투명이 된 얇은 꽃살결에 꽃술
 이 선명하게 그늘져 보이는 등의 표
 현으로 각별히 아름다운 진달래
 에 대한 그의 사랑을 표현해 보았
 다.

“산에 산에 진달래꽃
 피었습니다.
 진달래꽃 아름답다
 날 저룹니다.
 한 잎 두 잎 꽃 뿌리며
 돌아옵니다.
 뺨쪽새 먼 울음도 들려옵니다.
 산길은 봄, 어스름 살살 내리고
 저녁놀 서쪽 하늘 붉게
 탐니다.”
 <박화목謠 ‘진달래꽃’>

8. 무궁화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는 여
 림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꽃이
 피기 때문에 “自強不息하는 군자
 와 비유하고 별이 있을 때만 꽃이



◀ 할미꽃—이호신 그림—

있고 밤에는 시들어 버린 꽃의 모습을 榮枯無常한 인생의 원리를 보여준다”고 湖岩은 좋게 표현한 나무이다.

“아름답다. 무궁화,
우리의 무궁화.

금수강산 삼천리 곱게 피어서.
즐거우나 슬프나 한결갈게도
단군님의 마음씨 무궁화라네.”
〈김한배謠 ‘무궁화’〉

“무궁 무궁 무궁화,
무궁화는 우리 꽃,
피고 지고 또 피어 무궁화라네.
너도나도 모두 무궁화가 되어,
지키자 내 땅, 빛내자 조국.
아름다운 이 강산 무궁화 겨레,
서로 손잡고서 앞으로 앞으로.
우리들은 무궁화다.”

〈윤석중謠 ‘무궁화 행진곡’〉

9. 고사리

숲에서 나는 산물 중 고사리는 우리 민족과 오랫동안 같이 살아왔다. 산에서 수도하는 승려의 주요 음식이라 다른 사람들이 채취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고사리를 먹으면 정력이 떨어진다고 소문난 식물이다. 실제로 맨 위의 말린 부분은 독소가 들어 있다고 한다. 어린이들은 대부분 고사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전래동요는 아무래도 어른 생각이 많이 개입된 것 같다.

“고사리 대사리 끊자.

나무 대사리 끊자.

유자 팽팽 재미나 넘자

아장장장 벌이여.

끊자 끊자 고사리.

나무 대사리 끊자.

앞동산 고사리 끊어다가

우리 아빠 반찬하세”

10. 기타

그 외에도 개나리, 산딸기, 방울꽃, 할미꽃 등이 있다.

“개나리 개나리 앞에 따다 물고
요/병아리떼 종종종 봄나들이
잡니다.”

〈윤석중謠 ‘봄나들이’〉

“앞새 뒤에 숨어 숨어 익은

산딸기, 지나가던 나그네가 보았습니다.

딸까딸까 망설이다
그냥 갑니다.

앞새 뒤에 몰래 몰래 익은
산딸기, 귀엽고도 탐스러운
그 산딸기를 차마차마 못따가고
그냥 갑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깊은 산속엔
쫄로롱 방울꽃이 혼자 폈어요.

산새들 몰래몰래 꺾어갈래도
쫄로롱 소리날까 그냥 둥니다.

산바람 지나가다 건드리면은
쫄로롱 방울소리 쏟아지겠다.

산 노루 울음소리 메아리 치면
쫄로롱 방울소리 쏟아지겠다.”

〈임교순謠 ‘방울꽃’〉

“뒷동산에 할미꽃 꼬부라진

할미꽃

젊어서도 할미꽃,

늙어서도 할미꽃

하하하하 우습다. 즐고있는
할미꽃,

아지랑이 속에서 무슨 꿈을
꾸실까”

〈박목월謠 ‘할미꽃’〉

야생동물

숲 속나라에는 산토끼 다람쥐 같은 동물들이 사이좋게 살고, 산 까치 피꼬리같은 산새들이 노래 하며 산다는 김재복謠 ‘숲 속의 나라’라는 동시는 숲이 얼마나 어린이에게 꿈을 주는 곳이며 정서가 넘치는 곳인지를 알게 해준다.

1. 다람쥐

내가 근무하는 홍릉수목원에서는 다람쥐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적당히 작고 앙증맞은 모습은 미국 맨하탄 중앙공원서 보았던, 커서 약간 징그러웠던 다람쥐와 비교가 안된다. 더욱이 두손으로 도토리 입을 대고 갇는 모습을 보면 친근감이 절로 든다.

“산골짜기에 다람쥐, 아기 다람쥐/도토리 점심가지고 소풍을 간다/다람쥐야 다람쥐야 재주나 한번 넘으렴/팔닥 팔닥 날도 참말 좋구나”

2 산새

특정한 새의 이름은 몰라도 좋다. 그들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여러 종류가 있음을 안다. 동요가 아니면 이렇게 풍부한 소리로 표현할 수 있을까. 쫄쫄, 짹짹, 쫄쫄, 쫄쫄, 짹짹, 짹짹, 짹짹 노래하는 산새들의 소리는 즐겁다.

“산새소리 들으며 언덕길을 오

르면 곱게 비운 내 마음은 산새가 된다. 파아란 하늘 향해 노래부르면 내 마음은 산새되어 날아간다.”

〈이성은謠 ‘마음’〉

“호롱비배종 산새들이(숲속에 서) 노래를 한다.

예쁜 목소리로 산새들이 노래를 한다.”

〈추일호謠 ‘노래하는 산새’〉

3. 까치

유럽에서는 과일을 파먹어 농부의 마음을 아프게하여 흉조라고 하는 까치가 우리 나라에서는 반대로 길조다. 울음소리가 유난하고 큰 나무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모습이 길손으로 반긴다고 선의로 해석하는 마음씨 때문인가 보다. 가장 중요한 명절을 노래한 곡에 까치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그는 우리 생활의 일부였다.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

▼마른겨울 하늘 까치밥 흥시에 수없이 날아드는 까치떼 -이호신 그림-

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윤극영謠 ‘설’〉

“까치집 까치집 하늘 속의 집 흔들리는 방에는 아기 까치들.

구름에 입맞추며 노래하지요.

구름에 입맞추며 노래하지요.”

〈김낙천謠 ‘까치집’〉

4. 기러기

기러기는 철새다. 하늘에 줄지어 날아 다니는 광경은 이제 그리 흔하지 않지만, 가끔 시골에서 보면 온다는 느낌보다는 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딘지 모르게 우리 마음을 쓸쓸하게 한다. 특히 보름달을 가로질러 나는 기러기 떼는 더욱 그런 맛이 난다.

“달 밝은 가을밤에 기러기들이 찬서리 맞으면서

어디로들 가나요.

고단한 날개 쉬어가라고

갈대들이 손을 저어



기러기를 부르네.

산 넘고 물을 건너, 머나먼 길을 훨훨 날아 우리 땅을 다시 찾아 왔어요.

기러기들이 살려 가는 곳.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너는 알고 있겠지.”

〈윤석중謠 ‘기러기’〉

5. 그 외에도 따오기, 꾀꼬리, 삵꾸기, 산토끼 등이 동요에 등장하는데 그들이 나오는 동요 한 두 곡만 열거한다.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 따옥 소리 처량한 소리 떠나가면 가는 곳이 어디메이뇨.

내 어머니 가신 나라 해돋는 나라”

〈한정동謠 ‘따오기’〉

“피플피플 꾀꼬리 누구하고 노나/피플피플 꾀꼬리 꾀꼬리하고 놀지.”

〈박목월謠 ‘누구하고 노나’〉

“삵꺅삵꺅 봄이 가네, 삵꾸기 소리 잘가란 인사, 복사꽃잎 떨어 지네. 삵꺅삵꺅 여름 오네, 삵꾸기 소리 첫여름 인사, 잎이 새로 돌아 나네.”

〈이순형謠 ‘새로운 발견’〉

“기린이랑 사슴이랑 숨바꼭질 재밌다.

바위 뒤의 기린 목 잘 들키고 나무 뒤에 사슴뿔 안들키고”

〈김계원謠 ‘기린이랑 사슴이랑’〉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산고개 고개를 나흔자 넘어서 토실 토실 알밤을 주워서 올테야”

〈이일래謠 ‘산토끼’〉

“토끼야 토끼야, 산 속의 토끼야. 겨울이 되면은 무얼 먹고 사느냐/흰 눈이 내리면 무얼 먹고 사느냐/겨울이 되어도 걱정이 없단다. 엄마가 아빠가 여름동안 모아 놓 맛있는 먹이가 얼마든지 있단다.”

〈강소천謠 ‘산토끼야’〉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께. 새 집 다오/두껍아 두껍아, 물길 어 오너라, 너희 집 지어 줄께./

두껍아 두껍아 너희 집에 불났다. 숲이랑 가지고 돌레돌레 오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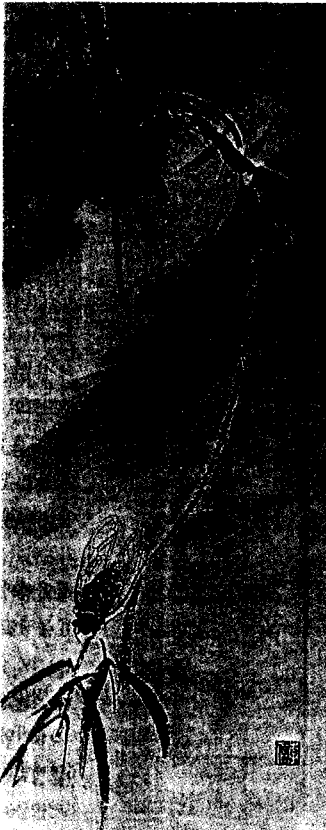
〈전래동요〉

“하얀 노란 나비들이 팔랑 팔랑 춤을 추네. 나폴나폴 춤을 추네. 진달래꽃 꽃잔치 봄잔치 벌여놓고 나폴나폴 춤을 추네. 사뿐사뿐 춤을 춰요 춤을 춰요.”

〈김규환謠 ‘나비들의 춤’〉

“숲 속의 매미가 노래를 하면 찬이슬 아침마다 흠뻑내리고 가을이 저만큼 다가온다죠.”

〈이태선謠 ‘매미’〉



◀ 매미—이호신 그림